AI 확산의 반작용, 경쟁 심화와 비용 압박

Market 황산해 _ sh.hwang@ls-sec.co.kr
Quant 고세은 _ kose@ls-sec.co.kr

AI 확산의 반작용, 경쟁 심화와 비용 압박

미 증시는 DOW -1.34%, S&P 500 -1.57%, NASDAQ -2.04%, Russell -2.01%로 하락. AI Disruption Risk(대체/파괴 리스크)가 시장의 메인 화두로 떠오르며 소프트웨어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 전반(S.W, 부동산, 물류, 금융)을 압박. 여기에 시스코(-12.3%), 앱러빈(-19.7%)의 어닝 쇼크,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귀금속과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 등이 하방 압력 부여

특히 시스코의 실적은 메모리 칩 급등과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을 대변. 델(-9.1%), HP(-4.5%)부터 애플(-5.0%)까지 메모리 공급 압박 불가피한 영역들 동반 부진. 결국 AI 확산과 투자가 과열 양상으로 접어듦에 따른 부작용들(경쟁 심화, 비용 압박)이 가시화. 11 개 섹터 중 유틸리티(+1.5%), 필수소비재(+1.3%), 부동산(+0.3%)을 제외한 8 개 섹터 하락 마감. 씨게이트(+5.9%), 마이크론(+0.9%) 등은 견조했으나 장 초반 대비 상승폭 축소. M7(-2.3%) 등 빅테크들도 ROI 에 대한 우려로 부진

미 국채 금리는 2Y 3.47%(-6.3bp), 10Y 4.11%(-7.2bp)로 하락. 주식시장의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반영. 발표 예정된 CPI 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존재. 유가는 WTI 기준 -2.7% 급락한 $62.9 기록. 지정학적 긴장감에도 IEA 의 수요 둔화 전망에 반응

AI Disruption Risk 확산, 끊임없이 등장하는 피해자

AI Disruption Risk(AI 대체/파괴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며 소프트웨어→부동산서비스→물류시스템으로 피해 영역도 확장. 기업들의 생존에 대한 우려는 KKR(-3.8%), 블랙스톤(-2.8%) 등 사모펀드 영역의 하락으로까지 연결. 금융업종 전반도 해당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 최근 한달 수익률 기준 금융 업종은 -5.4%를 기록하며 11 개 업종 중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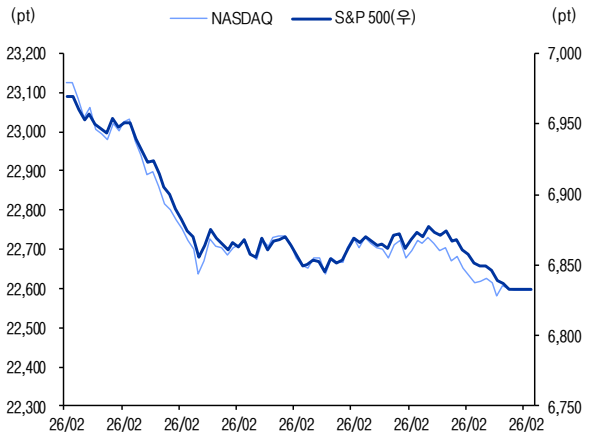
AI Disruption Risk 는 기업들에게 직간접적 영향. 각 AI 플랫폼들이 기존 플레이어들을 대체하는 것에 실패할지라도 경쟁을 위한 투자를 재촉하는 이벤트라는 것. 소프트웨어 또는 무형자산 경쟁력 기반 사업들이 과거 SaaS, IT 붐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수익 최적화의 경로를 택했으나 재차 경쟁에 직면

금일 물류서비스 업종의 급락은 시가총액 $6M 의 초소형 AI 물류기업 알고리즘 홀딩스(+30%)가 자사 SemiCab 플랫폼의 성과를 강조하며 발생. 이에 CH 로빈슨(-14.5%), 엑스퍼디터스인터(-13.2%) 등 시가총액 $10B~$30B 규모의 대형 물류서비스 기업 주가 급락. 일반 대기업들이 AI 기반 S.W 를 도입한다면 더 이상 물류 중개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바이클레이스, 베어드 등은 리스크에 비해 급락이 과도하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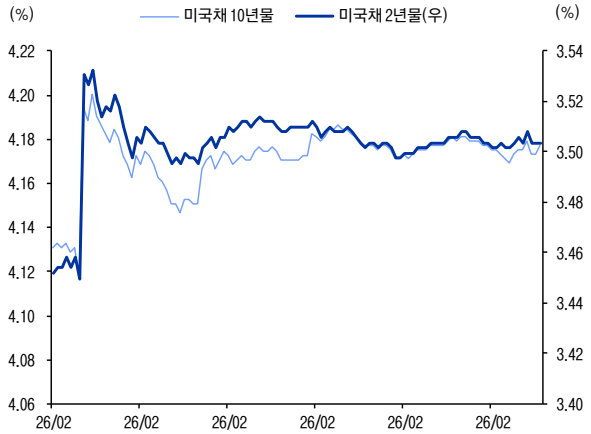
1 월 CPI 대기, 인하 기대감 되살릴까?

한편 2/11 예정된 1 월 CPI 는 0.3%MoM, 2.5%YoY 가 컨센서스로 형성되며 전월(2.7%YoY)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 해당 기간 낮았던 유가 레벨과 트럼프 행정부의 필수품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영. 금번 발표가 고용지표 이후 후퇴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되살릴지 여부 주목. 현재 CME FedWatch 상 6 월 동결 확률은 36%로 전주(25%) 대비 상승

● Global 주요 증시



● FICC



특징주: AI 앞에 무너진 물류, 메모리는 강세 지속

애플: AAPL	-5.0%, Siri 출시 또 지연

AI 탑재 Siri 출시 지연 소식과 FTC 조사 가능성에 주가 하락. Siri는 당초 '26년 3월(iOS 26.4) 전면 개편안 출시가 목표였으나, 테스트 중 성능 저하로 인해 5월(iOS 26.5) 혹은 9월(iOS 27)로 연기를 검토 중. '24년 6월 처음 공개 이후 이미 한 차례 '26년으로 미뤄졌던 계획인 만큼, AI 모멘텀 약화 우려에 주가 약세. 한편 트럼프가 임명한 앤드류 퍼거슨 FTC(연방거래위원회) 의장은 애플 뉴스 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 뉴스 제공 시 좌파 매체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며, 콘텐츠 선별 기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모습

C.H 로빈슨: CHRW	-14.5%, 다음 타깃은 물류

AI 도입에 따른 대체 가능성 대두되며 주가 급락. 논란의 근원은 AI 기반 물류 자동화 플랫폼 SemiCap. AI로 화물 적재 및 트럭 이동을 적절히 배치해, 화물 가동률을 확대하는 방식. 이에 C.H 로빈슨(-14.5%), XPO(-5.4%) 등 급락. 다만 Barclays는 일련의 상황이 과도한 반응이라 반박. 이처럼 AI 도입에 따른 대체 우려가 금융→부동산→물류 순으로 급격히 확산되며, 시장 내 갑론을박 역시 과열되는 양상

씨게이트: STX	+5.9%,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키옥시아의 호실적 발표로 레거시 메모리 전반 강세. 실적발표의 주요 골자는, 데이터센터향 강수요와 그에 따른 출하량 확대 및 ASP 상승. 이에 금일 나스닥 수익률 TOP5 내, 씨게이트와 웨스턴디지털(+3.8%) 입성. 월 초 주가 조정 이어졌던 샌디스크(+5.2%) 역시 강세. 금주 AI 밸류체인 내 S/W 논쟁과 주요 업종 AI 대체 논란에도,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순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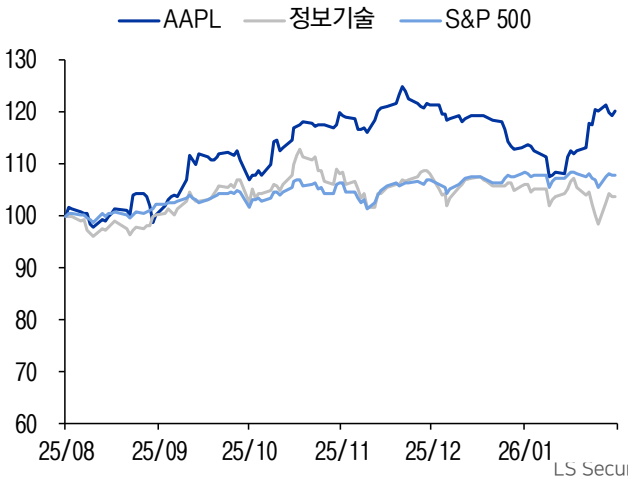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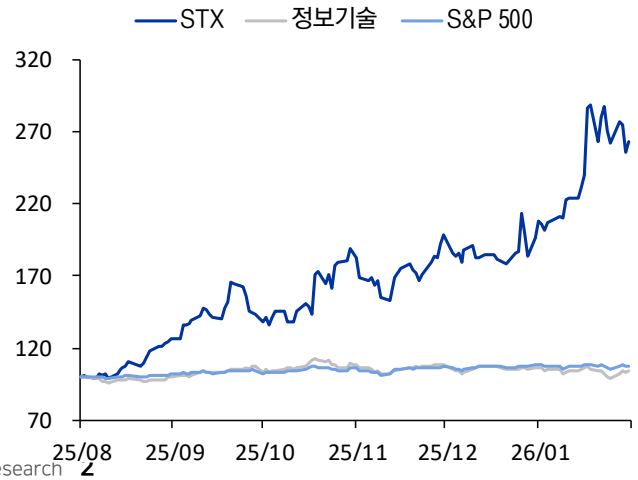
어플라이머티: AMAT	-3.4%, 마감 후 +9%대 상승,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컨센 대폭 상회하는 매출 가이던스 제시하며 주가 강세. 1FQ26 실적은 매출 $7.01B, EPS $2.38로 컨센($6.86B, EPS $2.21) 일제히 상회. 게리 디커슨 CEO는 AI 컴퓨팅에 대한 업계 투자 가속화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언급. 더해, 올해 반도체 장비 사업 부문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첨언, 2FQ26 가이던스는 매출 $7.15B~8.15B, EPS $2.44~$2.84로 컨센(매출 $7.03B, EPS $2.29) 상회. 한편, 그간 센티 악화시켰던 중국 규제 관련 이슈 해결되며 주가 하방 경직성 확대. 동사는 미 상무부로부터 대중국 불법 수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과태료 $252.5M 지급하며 해당 조사 종결

기타 코멘트	META(-2.8%), APP(-19.7%), RIVN(-5.1%)

메타(-2.8%)는 $27B 규모 데이터센터 회계 처리에 관련하여, 감사인의 경고 제기에 주가 하락. 앱러빈(-19.7%)은 매출, EPS, 가이던스가 컨센 상회하며 호실적에도 불구, 매출성장률 전망치 둔화 및 경쟁 심화 우려에 주가 하락. 리비안(-5.1%)는 호실적에 시간외 +14%대 상승 중

애플: AAPL



씨게이트: STX